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10 지역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4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재)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40 채널A 뉴스특보	00 여름기획 KBS 네트워크 특선 천리포수목원의 사계 55 바른말 고운말	00 방학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여름방학특집 애니왕국
12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1대100(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DMB매거진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KBS 광주 보도특집 〈섬의 선택, 다리의 두 얼굴〉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0 야생일기(재) 50 바른말 고운말 55 튼튼생활체조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우리 결혼했어요(재)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30 내 몸을 바꾸는 황금레시피 45 내 손안의 책	0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정고무신4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뷰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500人
12	4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재)	20 우리 생애 마지막여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24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무한도전(재)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07:15 곤(재)
07:30 출동! 슈퍼윙스(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9:35 이얍! 스페이스 정글
09:40 토크쇼 부모 - 고수다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3:3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3:5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4:15 피터 래빗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4:45 미앤마이로봇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5:15 내 친구 아서
15:30 시계마을 티키톡!
15:45 미술 탐험대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9:30 EBS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원시자연의 땅, 캄차카 반도 1부 캄차카의 여름, 불곰의 연어사냥〉
21:30 한국기행 〈산촌별곡 1부 - 돈너미〉
21:50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 4부 빛과 원자〉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서호주 샤크베이〉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00:50 〃 교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짜개념〉
02:30 〃 〈미적분II〉
03:20 〃 〈수학 I 〉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II〉
05:00 뉴탐스런 〈물리〉
06:00 〃 〈생명과학〉
06:50 〃 〈동아시아사〉
07:40 〃 〈윤리와 사상〉
08:30 2016 수능개념 〈윤혜정의 국어〉
09:20 〃 〈심주석의 수학〉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11:00 〃 〈수학〉
12:15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재)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 B형〉
14:50 올림포스 〈문학-알짜개념〉(재)
15:40 〃 〈미적분II〉(재)
16:30 〃 〈수학 I 〉(재)
17:20 〃 평가문제 〈미적분II〉(재)
18:10 2016 N제 〈국어 A〉
19:30 〃 〈영어〉
20:00 EBS스타강사 특강
20:50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21:50 〃 〈문학A형〉(재)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10 인터넷수능〈영어독해연습-종합〉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 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09:50 〃 〈수학(2)〉
10:30 〃 〈영어(2)〉
11:10 〃 〈사회(2)〉
11:50 〃 〈과학(2)〉
12:30 실전취업가이드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13:50 〃 〈수학(3)〉
14:30 〃 〈영어(3)〉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17:50 다큐 오늘
18:00 EBSTV중학 〈국어(5)(6)〉
18:40 〃 〈수학 3(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22:40 등업신공 〈수학 3(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음 6월 19일 辛亥)

子 48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60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72년생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대인 행동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니라. 84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6, 48

丑 49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61년생 상대하기 힘들 것이므로 맞서려 하지 말라. 73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5, 21

寅 38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50년생 마주 보고 대하면 풀 수 있다. 62년생 거의 같다. 74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체념하는 것이 낫다. 86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3, 43

卯 39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길성을 부르리라. 51년생 너무 경직 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63년생 별로다. 75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7년생 소신껏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27, 49

辰 40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52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64년생 눈에 띠는 것이 있으리라. 76년생 지금 실행 해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25, 93

巳 41년생 만회하기에 좋은 날이다. 53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65년생 운용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 할 수 있다. 77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54, 79

午 42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54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려 왔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78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1, 86

未 43년생 장담한다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55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67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징한 관점을 확보한다. 79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17, 62

申 44년생 일관 된다면 대원성취 할 수 있는 운로이니라. 56년생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이 겹쳐 걸리는 형상이다. 68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80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88, 77

酉 45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57년생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69년생 대접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다. 81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52, 32

戌 46년생 인정받거나 이루어지는 형국이로다. 58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70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82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1, 59

亥 47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59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71년생 명분에 그친다면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83년생 상당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7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엄마 역할에 점점 익숙해져요"

엄정화, 영화 '미쓰 와이프'서 모성애 발산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미쓰 와이프'의 연우는 과장된 코미디물의 여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이 역할을 맡은 배우 엄정화(46·사진)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는 인물이다.

전문직 여성으로서 화려한 독신의 삶을 누리는 '골드미스'에게 느닷없이 '엄마'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영화에서 연우는 사회적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는 변호사로 지내다가 사고로 천계의 입구에 이르고 그곳에서 공무원 남편과 아이 둘을 둔 가정주부의 삶을 한 달간 대신하면 본래 삶으로 돌려보내 준다는 제안을 받는다.

엄정화는 오히려 이기적인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더 어려웠고 엄마 역할은 큰 부담이 아니었다고 했다.

"오히려 초반부에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닫고 사는 여자를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더 됐죠. 법률용어 쏟아내는 것도 어려웠고요. 감정적인 부담이 덜한 건 엄마 쪽이었어요. 연우도 엄마로서는 서툴러도 (가짜) 가족들을 속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요."

엄정화는 그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들의 모습이 배우의 내면에 조금씩 쌓여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오로라공주'(2005), '마마'(2011), '몽타주'(2013) 등에서 모성애를 표현한 바 있다.

"모든 역할을 직접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기란 그 사람이 돼야 하는 작업인데 그걸 얼마나 생각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건 모든 역할이 마찬가지에요. 엄마 역할도 그동안 맡았던 게 조금씩 저의 시간에 쌓인 것 같아요. 예전 작품에서 마음 아팠던 게 아직도 조금씩 떠오르고, 예전에 못 줬던 사랑을 지금 작품에서 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있어요."

예전 작품과 비교하면 '미쓰 와이프'는 코미디물이기에 더 밝은 모성애를 보여준다. 엄정화도 촬영하면서 즐거웠다고 했다.

"그동안 늘 가슴 아픈 엄마 역할이어서 이번에는 아이들과 저녁에 놀아주고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역할이라 즐거웠어요. 지훈(아들 역할을 맡은 배우 정지훈)이는 촬영장에서 저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웃음) 순애보 같은 마음을 지닌 남편(송승헌 분)도 있고. 승헌 씨가 워낙 멋진 모습을 포기하고 사랑스러움을 잘 표현했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미쓰 와이프'는 배우 엄정화가 '코미디의 여왕'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펼치는 전반부와 감정연기를 펼치며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는 진지한 후반부로 나뉜다.

엄정화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부터 코미디라는 장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다.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부분은 출연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는 위로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이 힘들 때 마지막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저 역시 한때는 일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었어요.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생활을 즐기는 데 여유가 생겼고요."

지금은 주로 배우로 관객과 만나지만, 가수의 모습을 제외하고는 엄정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1990년대 독보적인 솔로 여가수였던 그는 올해 초 MBC TV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열풍의 주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당장 음반을 내거나 가수로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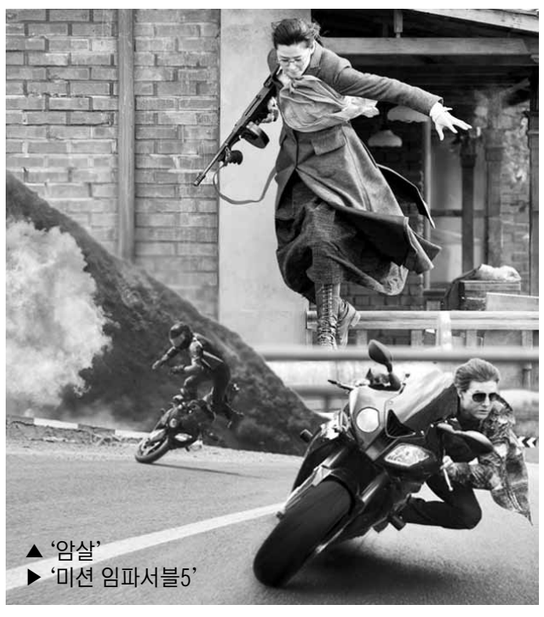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만한 계획이 없어요. 일단은 영화에 집중하고 싶어요."

엄정화는 배우로서 향후 행보에 대해 "항상 목마르다"고 했다.

"진짜 생활인으로서 진지한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때그때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변화의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살' 600만 관객 돌파

'미션 임파서블5' 나흘만에 200만명 관람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400만



▲ '암살'
▶ '미션 임파서블5'

한국영화 '암살'이 개봉 11일 만에 관객 수 600만명을 돌파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은 지난 1일 전국 1천50개 스크린에서 관객 58만5705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가 600만5639명에 이르렀다. 개봉 11일 만에 600만명 관객 돌파는 올해 선보인 한국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다.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크게 성공한 최동훈 감독의 전작 '도둑들'(2012)의 600만 고지 돌파 시점과도 같다.

이에 따라 최 감독이 '해운대',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에 이어 두 편 연속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이 찾는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물 '미션 임파서블'의 다섯 번째 영화인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미션 임파서블5)은 개봉 나흘째인 이날 오전 관객 수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이 영화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전날 76만6546명이 관람하며 개봉 후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173만8571명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관객 200만명 돌파는 올해 개봉한 흥행 영화 '연평해전'보다는 4일, '인사이드 아웃'보다는 7일이나 빠르다"고 전했다.

영화는 미국 최첨단 첩보기관 'IMF'(The Impossible Mission Force)가 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고, 에단 헌트(톰 크루즈)가 뿔뿔이 흩어진 팀원들과 함께 정체불명의 테러조직 '신디케이트'에 맞서는 내'용이다.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개봉 25일 만에 관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2일 오전 10시33분 기준 '인사이드 아웃'의 누적 관객수가 401만2751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 아웃'은 '겨울왕국', '쿵푸팬더' 시리즈에 이어 국내 개봉 역대 애니매이션 영화 가운데 흥행 순위 4위에 올랐다.

영화는 낯선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춘기 소녀에게 행복을 되찾아주려는 머릿속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캐릭터의 모험을 기발한 상상력과 따뜻한 정서로 그려냈다.

"공백 깨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것"

임희숙 '어떻게 좀 해봐' 신곡 발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와 '진정 난 몰랐네'로 유명한 가수 임희숙〈사진〉이 신곡을 발표한다.

진아엔터테인먼트는 1960년대 데뷔해 '솔(Soul) 음악의 대모'로 불리는 임희숙이 오랜 공백을 깨고 오는 5일 신곡 '어떻게 좀 해봐'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어떻게 좀 해봐'는 윤시내의 '열애',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동원의 '이별 노래' 등 숱한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최종혁의 작품이다.

재즈풍의 멜로디와 임희숙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시원한 음색이 인상적이다.

가사에는 '어떻게 좀 해봐 비뚤어진 지금 흔들리는 세상…씨 뿌리고 가꾼 만큼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봐' 등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희망적 메시지가 담겼다.

소속사는 "임희숙 씨가 '신곡으로 긴 공백을 깨고 새로운 임희숙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며 "음원 공개를 시작으로 각종 방송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